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자) 대림 제 1주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박진희 레지나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미영 글라라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자) 대림 제 1주일 (23. 12. 3.)

* 오늘 전례

오늘은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 제1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이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풍요로운 은총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하며,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아드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립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이사야서 63,16ㄹ-17.19ㄷㄹ; 64,2ㄴ-7):

16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17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마음이 굳어져 당신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당신 종들을 생각하시어,
당신의 재산인 이 지파들을 생각하시어 돌아오소서.
19 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리이다.
64,2 당신께서 내려오셨을 때 산들이 당신 앞에서 뒤흔들렸습니다.
3 당신 아닌 다른 신이 자기를 고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4 당신께서는 의로운 일을 즐겨 하는 이들을,
당신의 길을 걸으며 당신을 기억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서 저희가 늘 구원을 받았건만
5 이제 저희는 모두 부정한 자처럼 되었고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들도 모두 개집과 같습니다.
저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어
저희의 죄악이 바람처럼 저희를 휩쓸어 갔습니다.
6 당신 이름 부르며 경배드리는 자 없고
당신을 붙잡으려고 움직이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외면하시고
저희 죄악의 손에 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 제2독서(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3-9):

형제 여러분,
3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4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6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7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9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 복음(마르코복음 13,33-3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3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34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35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36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37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화답송

-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이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류의 빛이신 주님, 대림 시기를 시작하는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구세주를 기다리게 하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통치자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어, 인권이 침해되고 새로운 형태의 속박과 착취가 만연하여지는 현실을 바로 보고 용기 있게 바꾸어 가게 하소서.
3. 장애를 지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굽어보시어, 이 사회가 장애를 지닌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참사랑을 실현하게 하소서.
4. 교구(대리구, 수도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구(대리구, 수도회)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사회 교리 주간을 맞아, 사회 교리의 중요성

과 교육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며 삶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가
덧없이 지나가는 현세를 살면서도
지금부터 천상 양식에 맞들여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 성가 ♪

- 입당 : 대림초점화 노래 (주일학교)
- 봉헌 : 210 (나의 생명 드리니)
- 성체 : 504 (우리와 함께 주여)
162 (성체 성혈 그 신비)
- 파견 : 91 (구세주 빨리오사)

공지 사항

- ♣ 성탄 판공성사 안내
 - 판공성사 기간 : 12월3일(대림 제1주일)~12월 26일 (대림 제4주일).
 - 시간 : 미사 시작 15분 전.
 - 장소 : sala gicchi.
- ♣ 12월 24일 미사 안내
 - 11시 미사 : 대림 제4주일 미사
 - 17시 미사 : 성탄 밤미사
- ♣ 세례식 안내
 - 12월 24일 성탄 밤미사 중.
- ♣ 모임/회의
 - 청년구역 : 금일(3일) 미사 후
 - 사목회의 : 다음 주일(10일) 미사 후

♣ 봉사자

	오늘 주일(3일)	다음 주일(10일)
제1독서	강한 프란체스코	이준서 마르티노
제2독서	박수정 클라라	권혜림 세레나
복사	강윤이 스텔라 박동현 요한보스코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엄채운 엘리사벳
계단·화장실	강한 프란체스코	권혜림 세레나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173.70 • 교무금 € 300.00